

요란한 봄날

-강근숙-



시린 땅 뚫고 나와
햇살에 앉은 연둣빛 꼬맹이들
개나리 목련 진달래 벚꽃
흐드러진 사월은
내가 가장 좋아하는 생명의 계절

삼시간에 먹장구름 몰려와
우박 뿌리고
눈보라 휘몰아친다
118년 만의 이상 기후

땅 꺼지고, 파도가 일어설 때

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고

명당 찾아 둥지 튼 번쩍이는 금배지

너도나도 용상은 내 자리라고--

목청 높이는 야·단·법·석

여의도 벚꽃이 배를 잡고 웃는다

🔄Revision #3

★Created 15 April 2025 04:59:47 by pajuwiki

✎Updated 16 April 2025 02:33:17 by pajuwiki